글을 써볼까 합니다

Sungjin Yang

December 25, 2025

Online version: https://redoc.wops.dev/I-think-I\XeTeXglyph\numexpr\XeTeXcharglyph"0027\relaxll-do-some-writing/

글을 써볼까 합니다.

요즈음 운 좋게도 귀감이 되는 좋은 글을 많이 읽게 되면서 "언젠가 저도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려면 제 생각을 글의 형태로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"고 느꼈습니다. 어떤 식으로 글쓰기 훈련을 할지 고민해 봤습니다. 고민 끝에 내린 답이 바로 블로그 운영이었습니다. 사실 예전에도 몇 번 블로그 운영을 시도해 봤었습니다. 하지만 긴 글을 꾸준히 쓰기에는 제 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찌감치 포기해 버렸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짧은 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도 글의 길이에 너무 목매달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에 이번에는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짧은 글로 담아내보고자 합니다.

어린 시절 저는 도서관에 놀러 가길 좋아했습니다. 운이 좋으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누군가가 책 모퉁이에 끄적인 낙서를 볼 수 있었는데, 그 낙서를 읽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와 미세하게 공유하는 감정을 느꼈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. 여러분도 여기에 남기는 생각들을 읽으며 제 감정을 미세하게나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■